

장나라, 백화점 VIP 전담팀 '커리어 우먼' 완벽 변신

SBS 새 월화드라마 'VIP' 내달 7일 첫 방송

프라이빗 오피스 멜로... '밀보배' 입증 예정

'VIP' 장나라가 백화점 VIP 전담팀 '9년 차 커리어 우먼'으로 완벽 변신해 구치소 방문에 나선다.

오는 10월 7일 처음 방송될 SBS 새 월화드라마 'VIP'(극본 차해원/연출 이정립)는 백화점 상위 1% VIP 고객을 관리하는 VIP 전담팀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프라이빗 오피스 멜로' 드라마.

장나라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명문대를 졸업한 후 무리 없이 취직해 특진까지 한 성운백화점 VIP 전담팀 나정선 역을 맡았다. 그러나 흉잡을 것 없어 보이는 결혼 생활 내면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가진 인물. 장나라는 '믿고 보는 장나라'의 저력을 또 한 번 입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9일 장나라가 첫 번째 촬영부터 초 단위 표정, 눈빛 변화가 둘보이는 열연이 포착된 모습을 공개했다.

극 중 나정선이 구치소에 있는 VIP 고객 의뢰를 받아 출장을 나선 장면, 구치소 앞에 도착한 나정선은 긴장한 기색 없이 의연한 기세를 뽐내며 차 트렁크에서 검은색 하이힐을 꺼내고, 이어 접경실에서 고객과 마주한 후에는 환한 웃음을 드리운 뒤 바지 줄을 살짝 걷어 보인다. 과연

나정선이 어떤 의뢰를 받아 구치소까지 고객을 응대하러 나선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장나라는 VIP 전담팀 '나정선 차장의 첫 번째 포스'를 드러낸 장면은 앞서 지난 5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옛 성동구치소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세종장 두 곳에서 진행됐다.

장나라는 처음 촬영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드러내듯 특유의 명랑한 기운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등장해 스태프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활기찬 기운을 전했다.

이어 이정립 감독과 장면에 대해 의견을 꼼꼼하게 나누는 리허설을 진행했던 터. 촬영이 시작되자 장나라는 나정선으로 순식간에 몰입, 캐릭터가 차한 상황과 감정을 소화해내며 완벽하게 촬영을 마쳤다.

처음 촬영을 마친 장나라는

"대본을 받은 후 첫 장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부터 나정선에 폭 빠져 단숨에 탐독했다"며 "최고의 분위기를 자랑하는 촬영 현장에서 나정선을 연기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런 현장의 열정과 긍정적인 기운이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작진 측은 "장나라는 첫 촬영부터 맞춤옷을 입은 듯 나정선의 복잡다단한 감정선을 표현, 현장을 감탄케 했다"며 "나정선을 통해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카리스마 반전 매력을 선보일 '밀보배' 장나라의 활약을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 'VIP'는 예능 프로그램 '리틀 포레스트' 후속으로 4개월 만에 돌아오는 SBS 월화극이다. 오는 10월 7일 처음 방송.

뉴스1



'나쁜녀석들' 28.2% vs '타짜3' 27.9% vs '힘내리' 19.0%... 예매 전쟁

영화 '나쁜녀석들: 더 무비' (권오광 감독)과 '타짜: 원 아이드 잭' (손용호 감독), '힘을내요, 미스터리' (이계백 감독)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예매율 접전을 벌이고 있다.

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나쁜

녀석들: 더 무비'는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28.2%의 예매율로 전체 실시간 예매율 1위를 기록 중이다. 이어 '타짜: 원 아이드 잭'이 같은 시각 27.9%로 전체 예매율 2위를 기록했다. 또한 같은 날 개봉하는 '힘을내요, 미스터리'가 예매율 3위로 19.0%를 기록하고 있다.

'나쁜녀석들: 더 무비'의 예매 관객수는 5만 7602명, '타짜: 원 아이드 잭'은 5만 6997명, '힘을내요, 미스터리'는 3만 8773명을 기록 중이다. 세 영화는 연휴 수혜를 노린 추석 영화로 오는 11일에 개봉한다.

뉴스1

MC몽, 3년만에 단독콘서트 연다

"복귀? 이후 계획 미정"

가수 MC몽이 3년만에 단독 콘서트를 연다.

9일 MC몽 측 한 관계자에 따르면 MC몽은 오는 10월 25일 서울

광장동 에스24라이브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 관계자는 '향후 복귀를 위한 콘서트 개최냐'는 물음에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답했다.

이로써 MC몽은 지난 2016년 콘

서트 이후 3년만에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가장 최근엔 지난 7월 가수 김종국의 콘서트 게스트로 참여한 적이 있다.

앞서 MC몽은 지난 2010년 병역 기피 혐의로 논란의 대상이 돼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당시 MC몽은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으나 이후 방송 활동은 자제하고 있다.

조정석, 조정석을 넘다... '관상' 913만명→'엑시트' 922만명

조정석이 조정석을 뛰어넘었다. 배우 조정석이 자신의 필모그래피 최고 흥행작을 갈아치웠다.

조정석 주연의 영화 '엑시트'가 개봉 40일 만에 지난 8일 누적 관객 수 922만명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이로써 '엑시트'는 조정석의 최고 흥행작 '관상'의 최종 관객수 913만명을 넘어섰다.

조정석은 6년 전 영화 '관상'에서 송강호(김내경 역)의 처남이자 이종석(진형 역)의 외삼촌 팽현 역

을 맡아 거침없는 열연을 펼쳤었

다. 그리고 이번 영화 '엑시트'에서는 대학 시절 산악부 에이스로 활동했지만 '청년 백수'가 되어버린 '용남'으로 분해 능청스러운 연기를 보여줬다. 용남은 유독가스로 뒤덮인 도심 속에서 클라이밍 실력을 발휘해 가족들과 시민들을 구하는 히어로로 변신하는 캐릭터. 조정석 특유의 코미디 연기가 관객들을 사로잡았다는 평이다.

개봉 한달이 지난 지금도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엑시트'는 1000만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편 조정석은 신원호 PD의 새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합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삼성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 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